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떡을 만큼만 거두어라 성경: 출애굽기 16장 16-21절

Tag: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떡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떡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떡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별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출16:16-21)

오늘은 만나 이야기로 시작한다.

추측컨대 만나는 우리나라 과자 사또밥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아니면 그보다 당도가 낮았을 것이다.

먹기 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당연히 맛이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질려서 지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 먹으면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조 되었을 것이다.

물론 만나가 최고의 음식은 아니다. 이 땅에는 온갖 식재료들이 널

려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가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는데 오멜(약 2.2L;한 되 두 홉)로 그 양을 측정해 보면 적당한 양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역시 오멜로 그 양을 측정해 보면 적당한 양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정은 먹다가 남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식탐을 물리치기 위하심이었을 것이다.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무리 보아도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오멜로 재 보면 많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적정량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식생활과 연관 지어서 유추해석 해 보면 이렇다.

많이 먹은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적게 먹은 자도 남은 것이 없었다.

혹시라도 염려 때문에 아껴 두고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생겼다.

사람은 염려하면서 남겨 두려고 한다. 쌓아 두려고 한다. 그래서 염려의 다른 말이 탐심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염려 때문에 쌓아 두려는 것은 선하지 않지만, 목적 때문에 저축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면 돈을 쌓아놓는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염려 때문에 돈을 쌓아둔다. 저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무작정

쌓아두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쌓아둔 다음 그것을 그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

또한 염려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는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이 자기의 몸을 위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할 염려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건강염려증도 선한 것이 아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끊임없이 몸매에 관심이 많다. 카페 손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 어떤 차를 마시느냐, 설탕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아주 민감하다. 어떤 분들은 아예 비만과 관련된 염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아주 날씬하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그렇다.

비만도 염려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살이 찢까봐 걱정이다.

비만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분들은 정말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맘대로 먹는다.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는다. 결국에는 더 먹고 싶어도 배가 받아주지 않아서 못먹는다. 나는 다이어트도 어렵지 않다. 좀 찢다는 느낌이 들면 우선 내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왜냐면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옷이 답답하다. 행동이 답답해진다. 살이 찢는 느낌이 들면 바로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세심하게 약 한달 정도 먹는 양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금방 몸무게가 빠진다. 그러면 다시 먹고 싶은대로 살아간다. 그래도 요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요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체질은 아니라고 한다.

가정의학과 유태우박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식탐

에서 찾았다. 식탐을 먼저 없애고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은 내 경우와 일치하기 때문에 실험에 성공한 셈 치고 소개한다. 식탐을 없애려면 2주동안 먹고 싶은대로 맘껏 먹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에서 식탐이 사라진다고 한다. 2주동안 실컷 먹으면 많게는 약 3Kg 정도 살이 쪼갤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과식이나 폭식하는 습관은 사라진다. 그리고 체중도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3kg 더 늘어난 체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로 가면 된다. 식탐이 사라진 다음에 하는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지 않는다. 요요가 온다는 것은 식탐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진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다루었을 뿐이다.

탐심을 물리쳤다면 이제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 졌다면, 그것은 다른 도전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전쟁의 첫 번째 단추는 몸에 대한 자신감 회복인 셈이다.

몸에 대한 자신감 회복은 하나님께서 적극 도와 주신다. 식탐과 장식탐만 물리치면 된다. 그런데 장식탐은 식탐이 해결되면 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눅12:22)

그러니 식탐 먼저, 다음에 장식탐 해결이다. 몸매만 갖추어진다면 무슨 옷을 입든지 이쁘게 보인다. 그러니 장식탐이 사라진다. 장식에 만족하면 옷값이 덜 들어가게 된다.

다음으로 최단 코스로 인생을 성공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겠다. 식탐과 장식탐이 사라지면, 그 곳에 머물렀던 열정(에너지)이 어디로 갈까?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도시를 건설

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늘리는 것으로 갔다. 대부분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마음이 쏠린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열정이란 그런 것에 쏟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눅12:31)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라!

나는 말한다. 가정과 일터에 올인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기적으로 도우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전쟁이란 무엇인가? 성경: 역대하 11장 1-12절

Tag: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 곧 베들레헬과 에담과 드고아와

7 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

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대하11:1-12)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가시화 되었음.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

전쟁은 하나님의 것.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심판 하시고, 전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

모든 나라는 전쟁을 통해 세워지고 전쟁을 통해 멸망한다.

대한민국은 6.25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도약한 나라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으려다가 일본에게 강점되고 말았다. 전쟁준비에 소홀하다가.

전쟁 앞에 용감하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이순신의 명랑해협.

그가 일본을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침략을 물리쳤다.

11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는 체격이 작고 힘이 없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어야 한다. 다른 곳에 가서 놀 것인지, 맞서 싸울 것인지.

-맞서 싸우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나는 군대에서 괴롭히는 고참에게 소대원 앞에서 짜증을 내서 괴롭힘을 이겨낸 적이 있다. 영기면 더 이상 괴롭히지는 못한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항상 있었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다. 평화는 전쟁의 결과일 뿐이다.

-패권국이 선할 때 평화는 유지된다.

-평화를 위해서 억약을 할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하지만, 그 말

의 목적은 적화야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이 극심하다.

-놀라운 것은 전쟁 없는 통일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주 국방은 기본이고, 동맹은 필수이다.

-반면 미국은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이춘근박사)

-미국은 언제 전쟁하는가?

1.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결코 먼저 건들지는 않는다.)-> 건들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왜냐면 핵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칙이 이번에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2. 한번 시작한 전쟁은 끝장을 내야 한다.

3. 원래는 안되지만 가족을 위협하면 싸움은 시작해도 된다.

4. 미국은 인명피해를 두려워하면서 전쟁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때릴 줄 아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라면 얼굴도 맞을 만하다. 피하다가 때릴 기회를 놓치는 것 보다는 얼굴을 한 대 맞는 게 낫다.)

5.가족의 명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에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힐빌리 엘레지)

6.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싸우는게 옳은 선택일 때가 있는 법이야. 내일은 그 친구를 보호해주렴. 너를 보호할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고.(힐빌리 엘레지)

7.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공화당원-무력외에는 방법이 없다.73%, 민주당은 39% 국민의 여론이 50%이상.

8. 전쟁은 수단, 평화는 목적.

9.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5번의 큰 전쟁. 한국, 베트남, 걸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10.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6.25때 빌리그래함 목사는 남한에 기독교 인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함.(남한에는 인구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왜 미국을 싫어하는가?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도 싫어한다.

미국이 전쟁을 유발하는가? 아니다. 북한이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전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포의 인권을 가장 가슴아프게 여겨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남한정부를 오랫동안 공격해 왔다. 현재 남한정부는 거의 북한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탄핵됨.)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